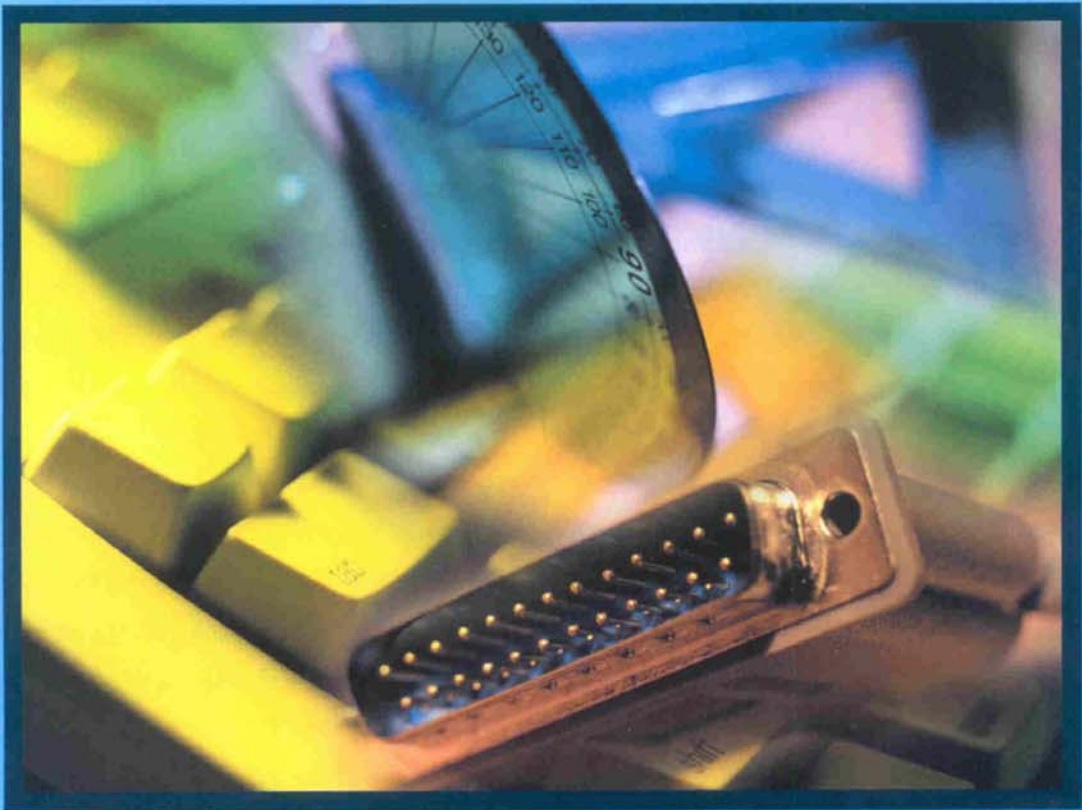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3년 3월 / 제14권 제3호 (통권 143호)



2003. **3**

CONTENTS

- 2 • 산학칼럼 /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의 허브이다 5 • 경영·기술정보 / 대구시 200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12 • 특별기고 /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의 현실과 과제 16 • 제154차 월례세미나 / 최고경영자 자신부터 스스로 Workfour하라
 22 • 대역단상 / 새로운 리더십 - 차이와 다양성 24 • 만나봅시다 / 이진학 대구지방국제행정
 27 • 연구원소식 28 • 회원동정 30 • 신학도서목록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의 허브(Hub)다

김달웅 | 경북대학교 총장

많은 희망과 염원을 안고 새정부가 출범하였다. 무엇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새정부가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사회'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 간에 나타난 불균형발전이 우리 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대 육성을 통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점인 대학 서열화 현상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여 왔다. 그리고 지방분권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에 대한 세부추진 과제들을 정립하고, 이를 국정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진과제들이 지난 30여 년 간의 국도균형발전 정책처럼 허울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왜 지방대학이 지방분권 운동 추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산업화를 거쳐오면서 지금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수도권에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자원이 집중해 있는 반면에, 비 수도권은 상대적인 정체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 자원 활용 측면에서 보면 고비용·저효율의 전형적인 예이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원의 선택적 집중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지역의 과밀화 현상은 물류이동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쉬운 예로써, 교통체증은 경제적 손실과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오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는 엄청난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져다 줄 기회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중의 손실을 감수하는 형편이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매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방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진학자의 절반이상이 지방 고등학교 출신자이다. 이들 학생은 해당 출신지역의 아주 우수한 인재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해당 지역의 잠재적 미래 지도자들이 타지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인적 자원의 공백 문제는 지역 발

정책적으로 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굴뚝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만들어낸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직종이 유망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 이러한 교육부문도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이다.

지방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취업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기업들의 본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회 영역의 의사결정기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고용기회 선택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취업난은 방치할 수준을 넘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불황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세계화시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의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저비용·고효율의 방법은 바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분명 지식기반사회는 고급 과학지식과 첨단 산업기술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제공하는 주요 원천으로 작용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와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은 대학의 연구활동과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현상이다. 한 마디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어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이야말로 지역사회의 혁신을 위한 비전과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세방화(世方化)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불가분의 공생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지역대학의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먼저,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 학교기관을 통해서 자기계발과 행복추구가 가능하도록 시민연대운동 전개를 장려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도권 특정 대학 입학목표로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은 소수의 수도권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명문대학에 진학한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명문고등학교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이른바 '입시지옥'에 갇혀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으며, 심지어 공교육의 현장인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이와 같은 파행적 형태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교육 수요를 해당 지역사회 자체에서 충족시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교육계의 연대 활동이 필요하고, 나아가 각급 학교들은 지역사회의 NGO단체와 네트워킹하여 시민사회운동에 동참하는 파트너십 자세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시민의식 개혁과 사회문화 혁신의 진원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은 앞으로 지역 혁신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대학이 추진하는 자구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대학이 세계적 표준을 지향하면서 국제적 경쟁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이 단순히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겠지만, 현행처럼 지역사회의 수요와 동떨어진 교과과정 편성이나 전공인원 배정은 대학교육 불신 풍조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정과 문화적 환경, 그리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설로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지역 대학은 거듭 나아갈 시점이다. 동시에 해외봉사활동, 해외인턴십, 해외연수 등과 같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학생들의 세계감각과 인식의 지평선을 확장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 지역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지역 대학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굴뚝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만들어낸 일자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직종이 유망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의 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 이러한 교육부문도 주요 서비스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소비 주체라기보다는 생산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조기유학 붐을 타고 해외로 유출되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상대국에게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책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배분,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나 교육기관에 대해서 1/n의 기준으로 동등한 배분이 되어서도 곤

란하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자원배정을 통해 전략적인 차등화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저비용·고효율의 교육 운영시스템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일이다. 비 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교의 예산을 능가할 정도의 투자를 통해 지원 육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으로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6조원 정도를 10개 권역의 지방대학에 6천억씩 매년 투입한다면 5년 이내에 지역교육 균형 발전의 터전을 확립할 수 있다. 그 투자효과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현재의 수도권 공용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신수도 건설비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여러 지역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저비용·고효율의 국토 균형 개발 정책인 것이다.

지금 대학으로서도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소극적, 방관적 자세에서 능동적, 주도적 참여로 변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연이 공동 참여 형태의 지역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경북대학교의 경우 '경북대학교 지역 혁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 지원단에는 기술혁신지원센터, 기술이전 거래 및 거래센터, 테크노파크, 재교육센터, TIC, RRC, ERC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대구, 경북간, 대학간의 협력과 이기주의를 넘어 대학의 R&D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출범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전기다. 지역대학은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적극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의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대구시 200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진훈 | 대구광역시 경제산업국장

■ 총괄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계획 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기술개발 및 품질수준향상지원, 중소기업 수출환경조성, 세계로 도약하는 섬유·패션산업 육성,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등 12개 분야 71개 사업에 사업비 총 8,19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해 사업비 6,423억원 대비 27%가 늘어난 규모로 과학기술지원, 중소기업 제품판로지원, 디자인개선지원과 산업용지공급부문에 사업비를 크게 증액하였음.

사업비가 증액된 주요부문으로 디지털산업활성화(90백만원 → 562백만원), 기업의 핵심기술정보지원(80백만원 → 120백만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44백만원 → 200백만원),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슈메릭 육성(300백만원 → 1,400백만원) 등으로 정보과학기술부분 지원강화와 지역중소업체의 생산제품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하였음.

또한 신규 사업인 차세대 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에 사업비 37억5천만원, 지역산업디자인센터 설립에 19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의 만성적인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지공급에 1천1백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임.

■ 신규사업

- ▲ 차세대 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은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핵심 산업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선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Project』를 2003년부터 5년간 추진하며,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당 1억원~2억원의 연구비 지원.

- ▲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에 고급디자인 인력 배출과 디자인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구상공회의소 부지에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설립을 목표로 산업디자인센터(RDC)를 건립할 계획임.

■ **주요사업**

-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생산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무역장벽 해소와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인증제도인 해외규격(QS-9000, ISO14001, ISO9001)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소요 경비의 50%를 지원.
- ▲ 지역의 원활한 산업용지공급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월배 비상 활주로 후적지 일원의 부지 12만 1천평을 산업용지로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달성 구지 지방산업단지의 82만평을 산업용지로 분양하여 만성적인 산업용지 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과 지역제조업의 역외 이탈 방지에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올해 마무리되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6개사업에 1천9백91억원을 투입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신제품개발센터, 염색기술연구소, 섬유산업 자금지원을 통하여 섬유업계의 직·간접지원을 극대화하고 상품기획 기능 향상,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염색가공기술개발, 염색폐수 및 환경관련 기술개발, 중소기업협업체의 애로기술 등 염색가공기술개발 과제를 선정,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최신 패션정보 제공으로 업계의 고유브랜드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 기존의 유통체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금년 3월에 달성구 용산동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을 개장·운영할 계획임.
- ▲ 지역특화산업의 OEM 수출방식 탈피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시가 개발한 공동브랜드 쉬메릭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제품의 차별화, 브랜드 개발에 따른 인력과 예산 절감,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분야별 세부사업**

1. **창업 및 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 창업보육사업 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역대학의 8개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 지원(1억5천만원)
 - 소호·벤처창업박람회 개최(2천5백만원) 및 벤처기업 후견인 사업 지원(5천만원)
- 벤처협동화생산단지 조성(성서3차 지방산업단지내) : 첨단산업단지 및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과 연계한 벤처협업화 섹터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여 2003.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

진(입주업체 선정 : 2003. 6)

- 대구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마무리 : 2003. 8월로 TP조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미출연액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출연하고 향후 자립방안 강구추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본격 조성
 -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대구벤처벨리에 포스트 인큐베이터 공간을 마련하고 S/W 등 지원
 - 성서공단 첨단산업전용단지 일대를 벤처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추진(중소기업청)

2. 자금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현 기금 조성금액 2,927억원)
 - 중소기업체의 열악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대외경쟁력 강화
 - 기금의 추가 조성(60억원 : 국·시비 각 30억원) 하여 7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시설자금 한도를 확대(8억원 → 10억원)
 - 전통산업의 IT화 자금을 우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선도 중소기업에 준하여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설 및 추석전 자금성수기에 지역소재 은행을 통해 단기운전자금 용자를 알선하고 이자를 2~4% 보전
 -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액(63억65백만원 → 77억원)
-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강화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조달
 -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보증수혜기업 확대를 위한 운용배수 확대(현행 2.3배 → 3배)

3. 정보화지원

- 대구 디지털산업 활성화 지원
 - 대명동소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열악한 벤처업체의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활동지원(90백만원 → 562백만원)
 - 지역 디지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로 IT·CT산업 활성화
- 1기업 1핵심기술 정보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의 기업 자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분석 및 정보 제공
 -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비 증액(40백만원 → 80백만원)
- 중소기업 정보센터 운영

- 각종 산업 기술 관련정보(업체 · 상품 · 시험장비 · 전문인력)를 DB화하여 제공(www.dgsm.net)
- 시비 지원 20백만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 과학기술 지원

- R&D기관의 확충 및 육성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및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에 사업비 지원(RRC 7억원, MRC 2억원)
 -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의 2개 센터에 사업비 지원
 - ◇ 반도체공정교육 및 지원센터(경북대) : 3억원
 - ◇ 3개거점 국립대학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경북대) : 18억원(국비13, 민자5)
 - 골격계 질환 유전체연구센터에 사업비 지원(1억원)
- 기술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및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에 사업비 지원(6억 5천만원)
 - 나노기술(NT) 진흥을 위하여 경북대 「나노과학기술연구단」에 연구비 지원(1억 5천만원)
 - 경북대 공대에 설치된 「산업현장 기술지원 핫라인센터」에 운영비 지원(1억 5천만원)
 -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BK21 사업의 2개 사업단에 사업비 지원(4억 8천만원)
 - 지역대학의 「우수공학연구센터」에 사업비 지원(1억 5천만원)
 - 과학기술관련 큰 행사가 있는 주간을 「대구과학주간」으로 선포하여 대구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분 위기 확산
 - 퇴직 과학자 또는 과학기술전문가를 과학기술자문관으로 위촉(90백만원)
- 차세대 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Future Daegu 21)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수 과학기술인력 보유, 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2003년~2007년(5년간)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정보통신, 나노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등 기초과학 연구,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추진

5. 기계금속산업 육성

- 대구기계부품시험평가센터(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개원
 - 지역 기계금속산업의 애로사항인 기술개발 및 시험 · 검사 등의 체계적인 지원
 - 2003. 4월 건물 준공, 2003. 6월부터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비 60억원)
 - 향후 연구원 기능 확대 추진(250억원 소요)
-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대구국제자동차화기기전(DAMEX 2003)」 개최(2억원)
 - 지원업체 확대(15개→28개) 및 지원대상인증 추가(ISO14001, QS9000)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강화(1억원)
 - 품질분임조 활동 경진대회 개최

-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분업조를 선정포상

6. 유통구조개선 및 판로 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ECRC 운영)
 - 지역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470 → 560백만원)
 - SCM-Net 사업의 POS 정보가공서비스 구축 및 ERP사업의 참여업체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 쉬메릭 육성
 - 하계U대회 선수촌 및 경기장내 전시홍보관 설치(2개) 등 홍보 강화(14억원)
 - 중소기업제품판매장내 50~60평 규모의 모델샵 설치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생산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
 - 시 산하 기관·단체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및 연간 물품구매액의 90%이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
- 중소기업 제품판매장 확충
 - 구 50사단부지내 연면적 1,406평 규모의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운영(민자사업비 40억원)
 - 대구공항내 특산물전시판매장에 운영비 지원(72백만원)

7. 수출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종합통상사절단파견 등 지역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배양(3회, 1억50백만원)
 - 해외 전시회 참가 : 해외전시회 대구중소기업공동관 설치(10회, 2억원), 개별참가업체 지원(25개사, 50백만원)
 - 뉴욕 섬유전시회는 전문전시회로 정착 : 봄, 가을 2회(1억50백만원)
 - 수출위험 회피를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 ◇ 수출보험료 계속 지원(60백만원)
 - ◇ 환변동 보험료 신규 지원 계획(2003년 추경, 50백만원)
 - 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및 해외시장 정보조사 지원(54백만원)
 - 통상전문인력센터 지원(50백만원)
 - 「대구국제광학전(DIOPS)」 개최
 - ◇ 2003. 11. 1 ~ 3(3일간), EXCO
 - ◇ 시비 지원(1억 50백만원) 및 국제전시연합(UFI) 인증 추진
 - 수출상품 CD-ROM 제작 배부(5,000부, 60백만원)

8. 인력지원

- 취업 알선기관을 통한 실직자 조기 취업 적극 유도(10개소, 10백만원)
- 고용촉진훈련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으로 공급(800명, 10억원)
- 「대구·경북 취업박람회」(10월경) 개최

9. 디자인개선 지원

- 디자인산업 진흥센터 지원(10억원)
 - 산업자원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디자인 경영,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산업디자인센터 건립(총사업비 500억원)
-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지원
 - 산업디자인 저변확대와 지역생산제품의 경쟁력강화
 - 대구상의 주관, 시비 지원(20백만원)

10. 산업용지 공급


- 성서4차단지 조성(2002~2004년) : 지역의 부족한 사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2004. 12월경 사업 준공 및 공장 가동을 목표로 달서구 월암, 대천동 일원(월배 비상활주로 주변)의 부지 121천평(국·공유지 46, 사유지 75)에 총사업비 711억원(보상비 492, 시설비 152, 기타 67) 투입조성
- 구지지방산업단지 조성(2001~2005년) : 2005. 10월경 공사 완료 및 공장 입주를 목표로 달성군 구지면 예현, 내리 일원의 부지 82만평(산업용지 69, 주거용지 13)에 총사업비 4,014억원(부지조성비 1,662, 기반시설비 2,352) 투입조성
-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지역기업의 산업용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소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3년 상반기에 소규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1억원)
 - * 개발 가능지역 : 다사읍 세천리 일원(23만평), 회원읍 구라리 일원(21만평)

11. 밀라노프로젝트(섬유산업지원)

- 밀라노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마무리(사업 마지막 연도)
 - 섬유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사업에 해당하는 각 사업은 계획대로 설비를 도입하고 업계에 대한 지원 내실화추진
 - ◇ 신제품개발지원센터(40억원),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40억원), 니트시제품공장(20억원), 섬유정보지원센터(40억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및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지원(90억원)

- 패션디자인산업의 활성화기반 구축사업
 - ◇ 한국패션센터 운영 초기 정상화 및 패션쇼장 활용도 제고
 - ◇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사업 본격 추진(토지보상, 업체유치 착수)
 - ◇ 봉제기술지원센터의 봉제실습교육장 설치 및 순회 기술지도 강화(5억원)
- 섬유산업인프라 구축사업
 - ◇ 섬유패션기능대학 이전사업은 패션어패럴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 섬유패션기능대학과 이태리 세폴리와 협력사업 추진
- 기업경영안정 및 지원기능 강화(사업비 290억원)
 - ◇ 섬유소재개발자금, 염색가공기술개발자금, 생산성향상자금, 염색시설 도입자금, 폐수처리시설확충자금, 직물비축협동화사업
-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계획 수립
 - 2003. 2월 계획 완료, 2004년 정부예산에 반영
 - 기 투자된 섬유연구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생산공정의 IT화 등 현장 중심적 구조개선 지원, 마케팅·정보 강화 등 시장 지향적 정책 추진, 패션·어패럴산업 활성화
- 섬유이벤트의 개최
 - 2003. 3. 20~23(4일간),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21억원)
 - 섬유박람회와 맞추어 3월경에 제19회 섬유패션축제 개최(3억 5천만원)

12. 기업인 및 근로자 사기 진작

-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 11월경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와 공동으로 개최
 - 우수기업체 시상(9개 업체), 우수제품전시회, 성공사례발표회 등 실시(34백만원)
- 대구광역시 노사 화합상 시상 : 「달구벌축제 경축식(9월경)」 때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2명), 사용자(2명), 유공자(1명) 시상
- 선도 중소기업 선정·지원 (20개)
 - 매출, 수출 등 우량업체를 선정, 자금 등을 우대 지원
 - 업체당 13억원까지(시설자금 10, 운전자금 3) 연리 3%(변동금리)로 지원
- 대구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 6월, 문화 예술 회관에서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주관으로 개최(22백만원 지원)
 -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과 상품화를 유도하고 민속공예기술의 전성발전에 기여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 4월, 경북기계공고에서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주관으로 개최(400백만원 지원)
 -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지역 기능·기술 수준향상에 기여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의 현실과 과제



심현철 | 영남대학교 취업정보실장

1. 새 정부의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활성화 구도와 기업의 입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기준보다 더 뽑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를 위해 공기업은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민간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추진 방안'을 밝혔다.

지방대학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일정기준 즉, 채용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지방대생 채용할당제'와 '여성 채용할당제' 도입을 기업의 인사자유권 침해와 기업의 채용부담 증대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모 취업정보업체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104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할당제 도입은 26개사가 찬성한 반면 56개사는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채용할당제는 83.7%가 반대하고 있다. 또한 10개사는 지금도 지방대생을 차별 없이 채용하고 있으므로 채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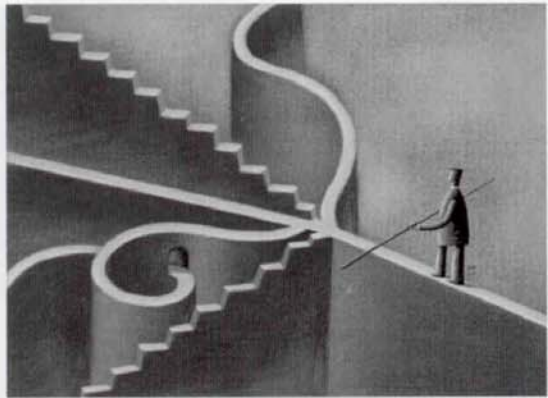
당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지방대생 채용할당제에 찬성을 표명한 기업 26개사(25%)중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기업은 7개사에 불과했으며, '강제조항이 아니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밝힌 기업이 19개사였다.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에서는 지방사업장이 많아 지방대생 채용인원도 많으므로 채용할당제가 아니라도 충분히 지방대생을 흡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에 대한 정서

기업구조의 중앙집중화와 채용기회의 상대적 차별적 인하여 지방대생들이 느끼는 취업에 대한 정서를 다음과 같은 분석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모 채용정보사이트가 2003년 2월 지방대생 4,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대생 10명 가운데 7명이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 갈 계획이 있으며, 현재 상경을 고려중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71%가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 갈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고려 중'이라는 응답자는 14%인 반면, '계획이 없다'는 15%에 불과했다.

이는 대졸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군의 부족과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편견 등으로 취업 상황이 불가피한 지방대생들의 취업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60%는 지방대생 취업난의 원인이 '사회적 편견'에 있다고 답변했고, 27%는 '정보부족'을 꼽고 있으며, '능력부족'이나 '자발적 구직의사 부족' 등 구직자 개인능력의 문제점 때문이란 응답은 13%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대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집중적 기업구조와 지방 산업의 낙후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대학 졸업자가 느끼는 상대적 차별성에 대한 분석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00개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채택한 채용·인사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이들 기업 종사자 5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에 학벌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31%가 신입사원 채용 때 1차 서류전형기준에 '학력'을 포함시켜 출신대학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명문대학'을 우대했다고 보고 있다.

'우대'는 서류전형 100점 만점 중 학력항목에 20~40점을 배점하고 대학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명문대학 1.0점, 서울 소재 유명대학 0.9점, 서울 소재 기타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0.8점, 지방 소재 대학 0.7점 등으로 가중치를 줬다고 한다.

이들 기업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38.7%가

채용 때 학벌을 중시한다고 답했고, 23.4%가 중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학력에 40점을 배점한 기업의 경우 명문대와 지방소재 대학 출신 학생 사이에 최고 12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학벌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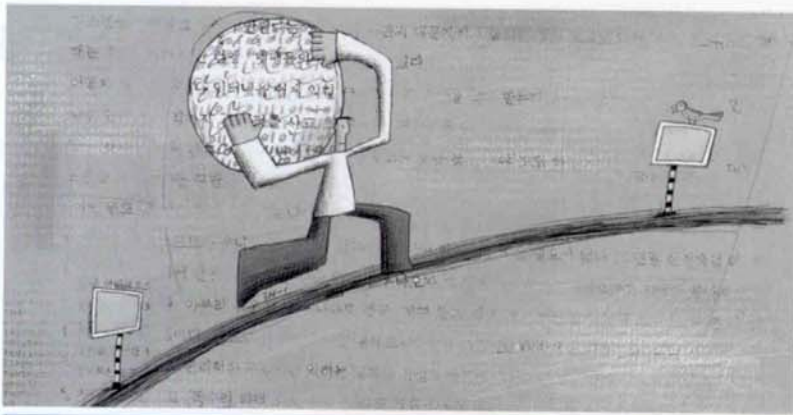
또 이들 기업 종사자(523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채용 때 회사가 학벌을 중시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시한다'는 응답이 38.7%에 달한 반면 '중시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3.4%에 그쳤다.

심지어 '명문대학 출신만 입사지원을 할 수 있다'는 대답도 13%나 됐다. 그러나 종사자 설문조사에서 '승진 때 학벌을 중시한다'는 14.4%로 '중시하지 않는다'(45.6%)보다 훨씬 적었고, 이동배치의 경우도 '학벌을 중시한다'(13.4%)보다는 '중시하지 않는다'(48.4%)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학벌문제 타파를 위해서는 입사지원서의 학력란을 없애야 하며 학벌 폐해의 근원이 입사인 만큼 수능 성적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대학선발제도 개선과 대학 특성화, 지방대 육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취업을 할 때에는 학벌이 당락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일단 취업한 뒤에는 학벌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기업 34곳과 공기업 4곳



등 38개 주요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개인신상이나 신체사항 등에서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차별적 항목이 1개 기업당 최소 4개에서 최고 26개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신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출신학교'의 경우 37개(97.4%) 업체가 본교와 분교 여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개(52.6%) 업체가 주·야간을 구분하고 있고, 19개 업체가 출신지역을 보는 등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입사지원서 상에서 차별성 항목이라고 분석된 항목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관례적 행태는 재고되어야 한다.

4.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과제

한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에서 2002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상황조사 결과 중 지역별 취업률을 보면 서울(40.3%)과 인천(40.2%)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38.2%)와 충북(37.6%), 부산·경남(37.3%) 지역 순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도권에 편중된 채용상황을 지방대생들은 채용 시장 불균형과 차별성의 결과로 보고 있다.

총체적이고 객관적일 수 없는 근거로 볼 수 있으나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의 채용규모는 일반적으로 작년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채용계획이 확정된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 구직자들은 올해도 극심한 취업경쟁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서 경력자 채용확대 등으로 대졸 신규채용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주요 기업의 신규 취업자 10명 중 경력자는 7명인 반면 신규 대학졸업자는 3명 정도이다. 그만큼 갓 졸업한 대졸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근본적으로 실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더불어 각 주체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에서는 앞서 논의된 '지방대생 채용할당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며, 지방분권화를 가속시켜 경기부양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지방사업장 중심으로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동체계를 항구적으로 구축하여 인력수급과 기술보육의 매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유학과 등 무분별한 외부 영입을 자제하고 지역인재의 등용과 내부인재의 육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수도권

학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수도권 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노력을 증대하고, 기업과의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들의 전공별 취업활성화 노력은 물론 취업이 대학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교내 전 구성원의 취업활성화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전폭적으로 투입하여 취업지원부서의 확대, 취업을 공개, 시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기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은 정보화에 기반을 둔 직무역량 이외에도 인성 평가를 통해 구직자의 성향과 직무에 임하는 자세를 평가한다. 따라서 구직자는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과 인성 함양 그리고 전략적이며 혁신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아울러 변화관리 능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을 길러 기업의 변화 추세를 읽고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별 핵심 역량을 항목별로 파악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방식이 다양화되고 있고, 채용시기도 수시채용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력자 모집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취업목표 기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업에 우선 취업하는 취업 눈높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취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환경을 비롯한 외적인 요인보다는 자신의 정신적 나태함이나 취업 눈높이 등 내부적인 요소이다. 정신적 나태함에 빠져 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구직계획을 세워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습관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영어활용능력을 배양하고, 취업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질향상과 더불어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의 훈련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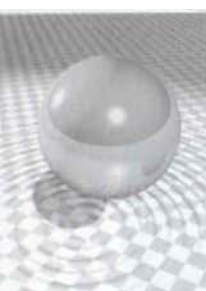
력 또한 중요하다. 수도권 학생들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취업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노력을 증대하고, 기업과의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들의 전공별 취업활성화 노력은 물론 취업이 대학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교내 전 구성원의 취업활성화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인력, 예산 등을 전폭적으로 투입하여 취업지원부서의 확대, 취업을 공개, 시장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 등을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졸자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취업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있으며,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외면하고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구직자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대기업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길이 없다.

기업의 63%가 입사 후 대졸자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대학이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요구가 많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교육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기회 확대, 대학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채용시장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 154 차 월 레 세 미 나

최고경영자 자신부터 스스로 Workout하라



정지태 | 본원 고문(서강대학교 재단이사)



편집자 주: 지난 2003년 2월 18일(화)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개최한 본원 「제154차 월레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최고경영자 자신부터 스스로 Workout하라

SEMINAR

1. Workout

1) Workout의 의미

Workout의 의미는 신체와 정신건강을 위해서 강한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몸의 필요없는 군살을 제거하고 약한 부분의 근육을 단련하여 육체적인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Workout의 대상

요즘은 한창 유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의 Workout이란 자산구조, 조직구조, 지배구조, 자본구조, 배출구조, 제품구조, 기술구조, 인력구조, 원가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과 금융기관의 Workout

금융기관의 부채가 많아서 일정기간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워 현재 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나 사업성과 시장성이 좋아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부도로 인하여 청산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가까운 기업에서 금융기관이 부채부담을 덜어주고 그 기업도 강력한 자구를 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 모두가 공존(win-win)하는 것이다.

4) 그러나 기업의 중앙통제부서(CCU: Central Control Unit)의 역할을 맡고 있는 최고경영자 Workout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고경영자의 Workout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정 등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최고경영자 개인의 역량, 능력, 비전, 철학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분이 훨씬 큰 우리 현실에서는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과 기업이 어떠한 최고경영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2~3년 안에 성장할 수도 있고 쇠퇴 내지, 퇴출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1) 기업 경영 중 가장 큰 리스크는 최고경영자 리스크이다. 금융기관 경영을 예로 들면 위험에는 신용관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환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수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최고경영자 리스크만큼 그 비중이 큰 것은 없다. 최고경영자 리스크란 최고경영자의 능력, 철학, 비전, 예측성 등의 부족으로 경영과 정보판단의 오류, 내부조직체 미비, 직원의 인식과 행동의 구조조정 부족, 정확한 경영방침 수립과 추진 미비, 직원의 공감대 획득 실패, 독단과 오류경영 등으로 그 조직에 해를 끼치는 리스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조직에 누구보다도 엄청난 피해와 위기를 불러 넣을 수 있다.

2)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경영효과, 경영결과(100%)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규정에 의한 효과(10%)보다는 최고경영자의 능력, 철학, 끈기, 열정, 집념, 해안(90%)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불안한 사람은 바로 최고경영자 자신이다. 다만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기업은 수많은 주주, 고객,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공인으로서 경영에 대하여 항상 감시와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다.

CEO의 경영능력, 경영방침, 경영의 투명성과 소신, 경영의 원칙성, 성격, 문제점에 대한 파악 능력과 해결능력, 대외적인 섭외책, 외압에 대한 대처능력, 조직에 대한 리더십 등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정말로 경영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CEO는 그 기업을 가장 위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무능, 무지, 독선, 정보부족, 미래예측력 부족, 상황 판단 부족, 리스크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가장 그 조직을 해칠 수 있는 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위에서 그 조직에서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CEO

이다. 단지 본인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고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4)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미 구미 선진국의 금융기관 검사 왕국으로서 영국의 영국은행검사국, 미국의 F.R.B(연방은행검사국), S.B.D(state 은행검사국), F.D.I.C(예금보험공사)가 국내의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평가한 내용을 보면 CAMELS와 ROCA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CAMELS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전 평가 항목 C(자본의 적정성: Capital Adequacy), A(자본의 건전성: Asset Quality), M(경영자의 경영능력: Management), E(수익성: Earning), L(유동성: Liquidity), S(시장 Risk 감응도: Sensitivity to Market

SEMINAR

Risk) 중에서 공통되는 평가요소는 경영자의 리스크인지, 측정, 감시, 통제 능력, Risk인지 업무의 적정성과 그 누구건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최고경영자의 리스크가 은행 경영의 기본이며 필수적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5) 이렇듯 CEO의 역할은 그 기업 경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세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자기 자신을 기업 조직경영에 전념하고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모든 사적인 부분을 도려내기 위하여 그의 인식과 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철저히 Workout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경영자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사고와 행동과 말은 알게 모르게 그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최고경영자의 인식, 사고, 행동의 Workout

1) 최고경영자는 그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가장 적합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기업에 지향할 모습과 위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장병 환자에게 두통약을 먹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 수립한 경영방침을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 하부 직원까지 공감대를 얻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수습 차례의 경영설명회를 갖는 등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이 부분을 최고경영자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반드시 노조를 포함하되 전달교육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전국, 해외의 현장을 찾아 직접하라. 아무리 좋은 보약도 환자가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3) 기업경영 중 최고경영자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조직 경영강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야 한다.

4) 조직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자는 최고경영자 자신이라고 직원들은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5) 원칙 경영,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인사이동, 승진, 고과, 징계, 여신 등에 있어서 이런 경영자세가 요구되며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비리, 사고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6) 중요한 경영방침과 비전은 직접 머리에 구상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직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독 경영자, 앵무새, 로버트 경영자는 절대로 직원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최고경영자가 건성으로 경영한다는 것을 영리한 직원들은 먼저 알고 있다.

7) 연습, 시행착오 경영은 경쟁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경영을 후퇴 내지 정체시키기 때문이다.

8) 최고경영자 자신의 홍보, 면피용 경영은 금물이다. 그 기업의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CEO 자신의 입



지 강하나 책임회피용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9) 인기. 여론 경영해서는 조직에 기강이 서지 않고 원칙이 무너진다. 원칙경영이 도리어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은행 금융산업은 탤런트, 배우, 코미디언 등과 같이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니다.

10) NO'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악역을 맡고 부하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라. 그래야 리더십이 생긴다.

11) 권한은 없고 조직을 지켜야 할 의무만 있는 자세를 견지하라. 각종 업무원칙을 벗어난 예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라.

12) 권한을 허부에 위양하여도 최고 책임자 자신에게는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라. 권한 위양으로 일어날 경영책임도 최고경영자에게 있다.

13) 외부압력, 청탁에 의한 경영책임도 면피가 되지 않는다. 최고경영자는 과연 구 조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가 하는 것을 항상 반성해야 한다.

14) 중요한 경영지표는 최고경영자의 끈기, 열성, 극성과 함수관계에 있다. 1회성 피드백(Feedback)으로는 불가능하고 끈기 있게 관심을 가질 때 소기의 경영효과를 볼 수 있다.

15) 이사회는 수준은 사회자인 최고경영자 수준이다. 이사회는 많은 경영진과 간부들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기업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따라서 원칙을 무시한 단서 혹은 예외를 주로 통과시키는 일, 상정 안건에 대한 경영자의 업무지식과 능력부족, 최고경영자의 일방적인 회의진행, 장시간 회의는 있고 생산적인 결론이 없는 회의, 집단·공동 무책임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회의 등으로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최고경영자는 자기 의견에 반하는 결정도 항상 받아들이는 회의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16) 후계자 양성과 정보 공유. 최고경영자는 언제 그 기업을 떠날 지 모르지만 그 기업은 영원하다. 따라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기업경영에 잠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최고경영자는 항상 평소에 후계자 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은 기업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조직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는 그 위치상 그 조직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 정보를 후계자를 포함한 모든 경영자에게 혼자 독점하지 말고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 공유문제는 최고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와의 경쟁관계를 배제하고 마음을 비우고 '공동번영'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17) 최고경영자는 성직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사랑, 봉사, 희생에 바탕을 둔 성직자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조직과 직원을 위한 자세를 취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며 존경받는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성과, 출근부가 전혀 없는 교회에 성직자 앞으

SEMINAR

비밀의 유혹



로 왜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헌금을 내는가? 최고경영자는 기업경영의 비결을 종교, 성직자 정신에서 많은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18) 차별화된 기업문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라. 경쟁하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독특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위기에 처했을 때 엄청난 회생력을 발휘한다. 기업문화는 경쟁력과 생산성의 일부이며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는다.

4. IMF이후 경영자도 뼈를 깎는 Workout을 해야 한다.

평생직장 개념 상실, 소속감, 주인의식, 사명감 결여, 요즘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Workout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는 채권금융기관과 원리금 상환유예, 이자감면, 원리금 탕감, 구주주에 대한 감사,

대출금의 출자전환, 사업교환(Big Deal), 분사, 제3자매각(EBO, MBO, Outsourcing), 외자유치 등으로 나타나지만 직원에게는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연봉제 계약, 용역 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일시불정산제 등 도입으로 자기직장에 대한 평생직장, 소속감 결여, 주인의식, 사명감, 충성심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영자는 소속 직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감동시키겠는가? 경영자는 임기동안 안일 무사하게 보내는 방법이 아니면 조직을 위하여 생각하면 '1日이 如三秋(여삼추)'와 같이 한없이 괴로운 자리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IMF이후 어려운 때에 경영자들은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의식, 사고, 행동을 Workout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리더십 - 그 차이와 다양성



민정식 | 경운대학교 신문방송광고학부 교수

코미디가 재미있는 이유는 의외성, 즉 일탈에 있다. 처음 상식과 논리를 따라가다, 어느 순간에 그 흐름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터무니없음이 웃음을 유발하는 원동력이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들이나 시트콤들을 보라. 모든 꼭지들은 의외성과 상식파괴를 바탕으로 웃음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뉴스앵커로 분장한 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5일 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추풍령부근에서 대구시 동구의 김모씨가 몰고가던 승용차가 아직 녹지않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6바퀴를 회전, 김씨가 어지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이다. 소위 '허무 개그'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웃음유발 전략은 의외성, 상식깨기이다. 이 상황은 최소한 김씨의 부상 또는 대형사고를 예고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 사고도 없다. 뉴스거리가 안되는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교묘하게 상식과 흐름, 기대를 벗어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일상에서 가벼운 상식을 벗어나는 비극적인 결과도 웃음으로 연결된다. 쓴웃음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아랫사람이 갑자기 반항할 때,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잘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의외로 풀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쓴웃음을 짓는다. 비웃음도 마찬가지이다. 비웃음의 대상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웃음은 의도된 흐름과 틀을 벗어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피엔딩의 웃음이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의 웃음도 어떤 사건이나 일, 삶이 잘못될 가능성을 벗어났다는 데서 기인한다.

상식, 기대치, 논리 등은 일종의 기존의 질서이다. 그 사회가 용인하고 따르는 흐름, 즉 구성원들에게 용인되어 일종의 구속력을 가지는 가치와 질서이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벗어나는 이들은 도태된다. 사회가 직접 도태를 강요하기도 한다. 범죄는 극단화된 일탈들이다. 일탈을 방지하고 징벌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이다. 이 때 질서는 폭력을 정당화한다. 즉 권위가 된다.


따라서 코미디는 교묘하게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반항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노수사가 웃음의 가치를 인정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유출을 막으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웃음을 인정하면 기존의 종교적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을 안 것이다.

이처럼 코미디는 일상에서의 탈출이자 질서와 권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기에 기존의 질서에 상대적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코미디를 즐긴다. 또한 이들은 기존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가보다는 순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존 권위의 절대적 수혜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코미디를 즐기는 이들 중에 젊은 층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코미디를 즐기는 자체가 기성 문화에 대한 가벼운 저항이 된다. 아직 미완성인 젊은이들은 기성 질서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소외감, 우울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코미디 즐기기를 가벼운 저항으로 본다면, 조금 더 진지한 저항은 다양한 분야의 '하위 문화' 들에서 나타난다. 하위문화는 대부분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이 향유하는 문화양식이다. 또한 고착화된 기존 질서, 관행,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이들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저희들끼리 약속된 상징들을 만들어 놓고 이를 즐긴다. 청소년들의 은어들이나,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문법들은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대표적인 하위문화들이다. 개성과 다양성의 표현이자, 저항이다.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특권처럼 보인다.

기존 질서에 익숙한 이들에게 곤혹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러한 하위문화들이 최근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 시대 대중문화의 총아인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현상들은 차이와 저항에 근거한 문화의 상징들로 넘쳐난다. 광고를 보라. 모두가 '예스'라고 대답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인간형을 추구한다. '나는 나' 이고 '세상의 중심'이다. '우린 미쳤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하위문화 힘은 이제 정치적 주도권까지 움켜 쥐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은 하위문화의 힘이 기존의 기성질서를 아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과 차이, 저항으로 무장한 신세대들이 자신들의 표현공간인 사이버 세상을 얻으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대중화했다. 그리고 결집했다. 인터넷의 등장 이전, 자신들만의 소공동체에만 머물던 이들이 표현공간을 넓히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확대시킨 것이다. '주류'라고 칭하던 이회창후보는 그 힘에 떠밀렸다. 그러면서도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확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어떤 시점을 계기로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선행조건은 세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점점 분화하며 변화한다. 그 기저에는 차이와 다양함이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를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은 우선 차이의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패배한다. 



이진학 | 대구지방국세청장

지역경제발전 기여 기업 최대지원, 세정질서 문란 행위자 규제 강화할 터

☞ 북대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대구로 다시 부임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는 하지만 고향에서는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첫 공직생활을 북대구세무서에서 한 이후 27년 만에 공직 생활의 고향인 대구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지역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 새 정부 출범으로 재정·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세정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은 많은 지역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정부의 세정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한 많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세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 국세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평』, 『청렴』, 『친절』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 세무행정이 변함없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세무행정의 결과는 공평해야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청렴해야 하며, 집행하는 방법은 친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모두에게 더욱 공평하고, 청렴하며, 친절하게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 정부에서 국세행정의 공평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없는 부의 세습 방지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세무담 불균형의 시정, 대기

업의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회계처리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대구지방국세청도 부의 세습과정에서 변칙상속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 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과 동시에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고소득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등에 대한 과세현실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되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등 부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강력히 규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 대구지방국세청은 얼마 전에 홈페이지(www.dgtax.go.kr)를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납세자들에게 납세편의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및 산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체로 비슷하여 우리 지방청은 지역납세자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선명하고 동적인 화면구성으로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ONE-CLICK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각종 서비스메뉴도 재배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한 납세자들로부터 참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03년도에 바뀌는 제도 및 법령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바뀐 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근로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및 정보화투자 등

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감면제도의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였으며,

둘째, 법령에 열거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여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셋째, 현행 금리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였습니다.

☞ 어느 인터뷰에서 과거 7%대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의 세수비중이 3%대로 떨어져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대구·경북과 현재의 대구·경북의 모습은 어떠하며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역의 주력업종인 섬유산업이 중국, 동남아국가의 값싼 임금으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비교적 고부가 가치를 많이 창출했던 건설업도 대표적 기업들이 법정관리로 전환되는 등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국세행정은 세수 확보보다 건실한 지역기업을 보호육성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고용효과가 높거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성실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자, 신용카드변칙거래, 자료상 거래 등 세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및 소득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끝으로 산학경영기술연구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실물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업이지만 고도의 전문화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 혼자서 경영 쇄신과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학계와 기업의 유기적 협조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의 협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산업경영기술연구원이 산학협동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에 잘 적용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연구원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의 기회를 준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 대 담 : 정연식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일 시 : 2003년 2월 28일(금) 10:00
- 장 소 : 청장실
- 연락처 : 053)350-1200 / www.dgtax.go.kr

연구원 소식

제5대 임원진 선임

지난 2월 18일(화)에 개최된 '제50차 이사회', '제13기 정기총회'와 3월 24일(월)에 개최된 '제51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임하였다.

- 명예이사장: 오순택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 명예 원 장: 최용호 경북대학교 교수
- 이 사 장: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 장: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부이 사 장: 구정모 (주)대구백화점 대표이사
진영환 삼익LMS(주) 대표이사
한삼화 (주)삼한씨원 대표이사
- 부 원 장: 김지수 영남대학교 교수
권업 계명대학교 교수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최영태 영진전문대학 교수
홍종흠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
- 사무국 장: 신진교 경운대학교 교수
- 사무차 장: 박주홍 계명대학교 교수

제13기 정기총회 개최

지난 2월 18일(화) 17:00~17:55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제13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이희영

- 안동과학대학 마케팅정보과 교수
- 생년월일: 1962. 5. 30
- 주소: 경북 안동시 서후면 교리 산89
- TEL: 054)851-3622



제154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2월 18일(화) 18:00~20:00까지 대구프린스호텔 별관 5층 글로리홀에서 「최고경영자 자신부터 스스로 Workout하라」라는 주제로 제154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지태 본원 고문(서강대학교 재단이사, 前 한국상업은행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29차 이토회 개최

지난 3월 8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29차 이토회를 가졌다.



회원동정



■ 이상천(본원 고문)

이상천 본원 고문(영남대학교 총장)은 3월 3일 영남대를 방문한 중국 난징대 홍인성 부총장과 양 대학 교수 및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에 조인하고, 학문 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



■ 최용호(본원 명예원장)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2월 5일 본원과 청도군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청도군 발전전략에 관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좌장

• 11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제 7회

이사회 참석

• 12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대구장기발전계획: 대구비전 2020」공청회에서 토론

• 13일 연세대학교 상경관에서 열린 (사)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

• 16일~19일 중국 천진시 도시계획설계연구원의 초청으로 천진시 경제기술개발구(TEDA), 항만, 보세구, 남개대학 등을 시찰하고, 「천진시 국토계획(안)」에 자문

•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김지수(본원 부원장)

김지수 본원 부원장(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한국재무학회의 공식학회지인 '재무연구' 편집위원장으로 선임

•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소장으로 선임

■ 정인상(본원 부원장)

정인상 본원 부원장(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은 포항공과대학교 이사로 선임

• 2월 17일~22일 (사)한국열처리공학회 회원 17명을 인솔하여 일본 열처리 공장 및 관련연구소 시찰(8개소)



■ 김동구

김동구 (주)금북주 대표이사는 3월 5일 한국음식업 중앙회 대구경북지회 회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6천만원을 전달



■ 김영재

김영재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3월 1일 상경대학장으로 취임



■ 김주훈

김주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2월 20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합동본양소를 참배하고 성금을 기탁



■ 남성희

남성희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대구보건대학장)는 2월 27, 28일 대구시 동구 깃바위 유스호텔에서 여성정치인 초청 리더십 세미나를 열고 「참여식 정치게임」에 대해 발제



■ 박찬석

박찬석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3월 12일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 농정시책 설명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업의 대응방안 및 농업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



■ 배수진

배수진 계명문화대학 경영과 교수는 2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기업윤리학회 이사회에 참석

• 22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영학회 이사회에 참석

• 28일 (주)한성유아이 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임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정신혁명과 사원의 자세' 라는 주제로 특강

• 3월 7~8일 대한경영학회 회장단으로 POSCO(주), (주)윤재호 베이커리 산업현장 시찰



■ 손기수

손기수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최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진공학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7대 회장에 선출



회원동정



■ 심상철

심상철 경북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는 지난 1월 미국인명연구소(ABI)로부터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과 학술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2003 올해의 인물(과학자): (Man of the Year-2003)」로 선정



■ 안충영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중국, 일본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5차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를 개최



■ 이구택

이구택 (주)포스코 사장은 3월 1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35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 이진영

이진영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주)포스코 상무로 승진



■ 이택우

이택우 (주)진양공업 대표이사는 영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



■ 이훈

이훈 (주)e-SIS 대표이사는 한국OSG(주)와 Xtendus(PRM) 계약을 체결

- 한전KDN의 강릉NDIS구축사업 입찰수주
- 신영금융(주)와 EA(Enterprise Agreement) 계약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2003년도 중소기업컨설팅 참여 컨설팅사로 선정

-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실시한

ISO/TS16949 전문가 연수과정 이수

- (주)구영테크 외 중소기업청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 체결



■ 황대현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2월 12일 달서구청 인토피아홀에서 개최된 「제5기 달서구노인문학대학 졸업식」에 참석, 졸업생 및 관계자를 축하격려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는 2월 14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지방분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에게 전달

•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태극단'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비밀항일 단체 태극단원들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김

- 삼일절을 맞아 3월 1일 대구상업정보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태극단' 독립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비밀항일 단체 태극단원들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김

축하드립니다

- 정상수 (주)경농 대표이사 차남 결혼 : 2003년 3월 22일(토) 12시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A홀

- 성기상 (주)푸드웰 회장 장남 결혼 : 2003년 3월 28일(금) 오후 5시 (삼성동)공향터미널 3층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만화로 보는 경제개방", 2002. 12. 30
- 삼성경제연구소, "최근의 노사 이슈와 대응방향", 2003. 3. 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2002. 12. 31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 2002. 6
- 서울특별시,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장·단기 발전전략", 2002. 11
- 서울특별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03. 1
- 한국금융연구원, "2002년도 KIF 은행경영 브리프", 2003. 2. 15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동향과 구조변화", 2003. 3. 3
-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주요 과제와 전망", 2003. 2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상품의 법률관계", 2003. 2
-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부문 상환대책", 2003. 2
-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이 국가경쟁력이다", 2003. 2. 4
- 한국산업기술재단, "국가경쟁력 향상의 초석 산업기술문화 확산과 Q-KOREA", 2003. 2. 18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비리류용 섬유제품 및 인증마크 현황조사", 2002. 12. 30

정기간행물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3. 3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북 경제동향", 2003. 1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3. 1/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3. 3
- 산학연종합센터, "산학정21", 2003. 3.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2", 2003. 2
- 인간개발연구원,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03. 3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 2003. 2
- 좋은 이웃집, "경제풍물", 2003. 3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나라", 2003. 3
-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타임즈", 2003. 3
- 증권거래소, "주식", 2003. 2
- 한국고속철도, "고속철도", 2003. 1/2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3. 3
- 한국산업기술재단, "KOTEF news", 2003. 3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관리", 2003. 3
- 한국산업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3. 3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개발연구", 2003. 1/2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 2003. 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1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 2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 2003 겨울호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학지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6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총장
- 원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서는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금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연구비 그리고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에 의거, 지정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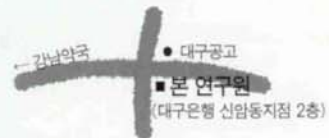
매월 3,0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 협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3년 3월호 (통권 143호)

- 간 별 : 월간
- 등록번호 : 대구라01089
- 등록일 : 1998년 6월 2일
- 발행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행일 : 2003년 3월 28일
- 발행인 : 최만기 (원장, 계명대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 교수)
한성덕 (대구대 교수)
- 편집위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 교수)
박규진 ((주)에드밸리 대표이사)
박종달 (한국창업보육센터협회 사무국장)
박진향 ((주)멀티에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주)멀티에드메이저(053-751-5005)



URI 韓國 産學經營技術研究院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 (053)959-2861~2 FAX. (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iri@kornet.net

한국경제신문

e-business

훨씬 저렴한 광고비용으로 최상의 광고효과를 약속하는

범어네거리 한국경제신문 뉴스 전광판

To be new! 더 새로워졌습니다. To be powerful! 더 강해졌습니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꼭 맞는 멀티미디어 동영상 시스템으로
 더욱 새로워진 범어네거리 한국경제신문 뉴스 전광판!
 보다 저렴한 광고비용으로 최상의 광고효과를 약속하는
 한국경제신문 뉴스 전광판으로 귀사의 성공을 예약하십시오.

범어네거리의 탁월한 입지환경!

- 범어네거리 동서남북 횡단도로 교차점
- 검찰청, 법원 및 언론기관, 호텔, 금융기관 등 대구 최대 Business Town
- 인근 20만호 아파트, 고급 주택가 밀집지
- 구매력 높은 광고효과 최상의 지역
- 시지, 범물방향 출퇴근 차량 시선집중 효과

최첨단 LED FULL C/L 방식!

- 첨단 멀티미디어 동영상 시스템
- 600인치 초대형 화면으로 시선주목 최대
- 동영상 & 2·3차원 그래픽 표출로 박진감 표현
- 1,600만가지 이상의 천연 Full Color 표출
- 자유로운 문자, 영상표현 등 다양한 화면구성
- 한국경제신문 뉴스, 속도 실시간 방송



업무 영역 소개

광고 비즈니스(Advertising)

- 주택광고 컨설팅 및 광고제반 업무
- 신문광고, 잡지 기획 제작
-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
- 기업 C.I. B.I 개발

출판 비즈니스(Print)

- 기업, 단체사보 및 뉴스레터 제작
- 기업, 학교 등 사사편찬
- 각종 단행본 제작

옥외광고 비즈니스(Out-Advertising)

- 전광판, 멀티비전 광고제작 및 대행
- 세일즈 프로모션

광고매체 대행

- TV광고, TV-ID 제작 및 대행
- R-CM 제작 및 대행
- 기업 및 학교 홍보비디오 제작

(주)멀티 애드메이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17-3 유전빌딩 6층
 TEL. (053)751-5005
 FAX. (053)744-9005